

세월호 유가족 “文대통령, 진상규명 약속 지켜야 한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참여 관계자들, ‘진실버스’ 타고 전국 순회 윤경희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 중” “문 대통령, 국민 외침 외면 말아달라”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 4월 까지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단체 및 관계자들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21일 동안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세

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국회 10만 국민 동의 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인천·안산·수원·대구·부산 등 전국 27개 지역을 돌고 이날 다시 서울에 도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경희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은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던 중 한 지역에서 만난 50대 남성이 ‘갑자기 왜 유가족들이 온다는 것이냐.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처럼 많은 분들이 ‘진상 규명을 약속한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 다 잘 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부서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해결해준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16 진실버스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계속 국민들을 만나고 연대해서 약속의 답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제 그만 눈을 뜨고 귀를 열어달라. 수많은 국민들의 외침을 듣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기독교인 연속 단식 기도팀 소속 진광수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대서양·태평양·남극 등 먼 곳에서 일어난 참사도 아닌데, 어떻게 6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진실이 안 밝혀지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

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진 목사는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실을 밝히는 일은 진도 앞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27개 지역 시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담긴 현수막과 문 대통령을 위한 엽다·아빠들의 편지 12통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등 관계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한 청와대 앞 농성을 7일 만에 중단했다.

당시 유경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재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통한 두 차례의 협의회, 노영민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을 통해 국정원 내 세월호참사 관련

문서를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제출하는 방식,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원 의혹 사안 조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는 방식으로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선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부친 폭행살해 혐의 아들...모텔서 긴급체포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 중

경찰이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중앙경찰서는 80대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뒤 노원구의 한 모텔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코로나 위험한데...여수산단, 비좁은 곳서 안전교육

“넓은 공간 없이 어쩔 수 없이 진행...개선책 마련할 것”



26일 여수국가산단내 한 입주사에서 공장 보수를 위한 협력업체 관계자 안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교육생들이 밀착해 있다.

여수국가산단 내 한 입주사에서 26일 공장 보수를 위한 협력업체 관계자 안전 교육이 시행됐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다.

이 공장 안전 교육에 참여한 협력사 직원 A 씨는 협력업체 직원 300여 명을 모아 놓고 공장 보수 전 안

전교육이 열렸지만 협소한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 서로 밀착해 앉아 있거나, 대부분 뒤에 서 있거나 아예 입장하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설명을 듣기도 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또 사측은 2개 조로 나눠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했지만, 지

하 교육실에서 책상 하나에 3-5명이 앉거나 뒤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협소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한 한쪽 측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 씨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원천사에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관례상 하청업체가 원천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불안하고 답답했지만, 교육이 끝날 때까지 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여수산단 업체는 넓은 장소가 없어서 좁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산단업체 관계자는 “교육생 등이 공장에 들어올 때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교육을 위한 넓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부득이 좁은 공간에서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실외에서 교육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